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역동적인 정부 창 열다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17. 6. 29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 (044-203-4080)	담 당 자	송상현 사무관(044-203-4086)

산업부-지자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

□ 산업부는 '17.6.27.~28.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(KOTRA: 코트라)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▲ **일자리 중심의 외국인투자 정책방향** 논의, ▲ 지방자치단체의 **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**, ▲ 지자체의 **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** 등을 위해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 주재로 「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」를 열었다.

○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했다.

□ 첫째, 참석자들은 **최대 국정과제**인 **양질의 일자리 확보**를 위해서 **외국인투자의 역할**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.

○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특전(**인센티브 제도**)을 **고용창출 효과**와 연계해 개편하는 **방안**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.

○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**외투기업들도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확대방안**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.

□ 둘째, 올해 **3년 연속 "외국인 투자 200억불 달성"**을 목표로 17개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**73개 프로젝트** (113.5억 달러 수준)를 **점검**했으며, 전반적으로 **주요 사업이 순항 중**에 있는 것으로 **파악됐다.**

○ 미국·**중국·일본** 등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는 국제적 **여건이 악화**되는 가운데에도 **한국경제 경제기초여건(펀더멘탈)**에 대한 **신뢰**에 **기반해** 큰 **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.**

○ 최근 아시아·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중국·**일본 등 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전반적으로 감소**하고 있는 상황에서,

* '17.1Q 아·태지역 M&A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.4% 감소한 1,248억불 (Mergermarket)

- 중국의 일련의 **해외 외환송금 규제 강화** 및 **해외투자 감독 강화** 조치('16.하반기~)가 **외국인 투자 본격 회복에 부담요인**으로 작용

□ 셋째, 지방자치단체는 ▲ **신규 외투지역 지정확대 및 관련예산 확충**, ▲ 특전(인센티브) 지원시 **지자체 분담비율 완화**, ▲ **유망투자가 정보 공유,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지원** 등 **중앙-지방간 협력강화**, ▲ **외투관련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**, ▲ **외투단지 입주관련 규제완화** 등을 건의했다.

○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자체 애로사항을 산업부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과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구분해 **현안카드로 관리해** 해결해 나가고, **협의 결과를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할 것**이라고 말했다.

□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**외투기업인들의 사기진작**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**"분기별 외투기업인 날"**을 개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·투자금액·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**포상을 함으로써**, 외국인투자의 **국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**할 계획이다.

□ 다음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는 오는 9월경 다시 개최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